

# 구한말의 궁중풍속 (溝韓末의 宮中風俗)

金 用 淑  
<淑明女大교수·博物館長>

## 目 次

### 前 言

#### I. 宮女考

- |                |             |
|----------------|-------------|
| (1) 宮女の 역사     | (5) 宮女들과 娛樂 |
| (2) 가뭇과 宮女放送   | (6) 國末의 餘興  |
| (3) 宮女の 同性愛-對食 | (7) 宮女들의 言  |
| (4) 宮女와 性犯罪    |             |

#### II. 궁중(宮中)의 무속(巫俗)

<자료(資料)> 궁녀(宮女) 명부(名簿)

## 전언(前言)

생활풍속(生活風俗)도 옛부터 「의관문물(衣冠文物)」이라 하여 지나고 보면 훌륭히 문화(文化)의 유산(遺産)인 셈이다.

20세기를 향(向)하여 치닫고 있는 기계문명(機械文明)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울 한복판에 가끔가끔 보수(補修)를 가(加)한 덕택에 오대궁(五大宮)은 그런 대로 건재(健在)하다. 그러나 생활인(生活人)이 없는 빈 전각(殿閣)은 한갓 옛 오백년(五百年) 궁중문화(宮中文化)의 빈 껍데기일 뿐이다.

건물(建物)이나 기능(技能), 예능(藝能)의 복원(復元)은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형태(形態)로 나타낼 수 없는 생활(生活)분위기만은 인간(人間)의 체온(體溫)이 없는 곳에서는 복원(復元)이 불가능(不可能)하고 차츰 그 시간(時間)이 길어갈수록 망각(忘却) 속에 사라져가고 만다.

필자는 이런 의미에서 윤비생전(尹妃生前)부터 이 분야(分野)에 들어서서 저서(著書)를 낸 바 있고, 현재는 이를 보완(補完)하여 재판(再版)을 계획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그 보완(補完)의 일부(一部)임을 밝혀둔다.

## I. 궁녀고(宮女考)

궁녀(宮女)는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일명(一名) 여관(女官)이라고 하며 상궁(尙宮) 이하의 궁인직(宮人職)을 말한다.

「이하」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일반 내인(內人)과 애기·혹은 소녀견습내인(小女見習內人)(생각씨)이 포함된다. 흔히 텔레비전 궁중사극(宮中史劇)같은 데서 무수리(수사(水賜))를 내인(內人)의 별칭(別稱)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무수리」란 이들이 부리는 하녀(下女)들로 비자(婢子), 각심이, 방자(房子)등의 별칭(別稱)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불박이로 췌내처소(闕內處所)나 내인(內人)의 집에 상근(常勤)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서 통근(通勤)하는 여인(女人)도 있다. 궁녀(宮女)는 연령상(年齡上)으로 최하 4세로부터 최고 70대(代)까지, 품계(品階)로는 무계(無階) (견습내인(見習內人)서 부터 종구품(從九品)으로 시작, 최고 정오품(正五品) 상궁(尙宮)까지의 많은 계층(階層)이 있고, 그 소속부처(部處)에 따라 직분(職分)도 다르고 명칭(名稱)도 다르고 또 신분(身分)도 다르다. 영조(英祖) 13年 4月 급제(及第) 이현필(李縣弼)의 직언(直言)에 대하여 자신(自身)의 소신(所信)을 밝힌 왕(王)의 말 가운데 「육백궁인 유부족지설 실비여심야(六百宮人 猶不足之設 實非予心也)」이라든가, 또 고종(高宗) 31년 제정(制定)된 궁내부(宮內府) 궁제(宮制)에 의하면 500 ~ 600名이란 숫자(數字)는 절대 실수(實數)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궁녀(宮女)에 관한 연구는 이미 20년전에 발표한 논문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재언(再言)을 피하겠고, 그의 보충(補充), 개고(改稿)에 그치려 한다.

## (1) 궁녀(宮女)의 역사

동양(東洋)에서 궁녀제도(宮女制度)의 기원(起源)은 주(周)나라 때까지 소급(溯及)된다. 「주례(周禮)」 예권(禮卷) 第九章에 여어(女御) 예기혼의(禮記昏儀)의

所爲 御妻란 御進也요, 侍也야.

소위 어처란 어진야요, 시야야.

祝 四人 奚 八人, 女祝은 女奴니 曉祝事者라. 女史 八人 奚十有六人. 女史란 女奴니 曉書者라.

축 사인 해 팔인, 여축은 여노니 효축사자라. 여사 팔인 해십유육인. 여사란 여노니 효서자라.

있어, 「여축(女祝)」과 「여사(女史)」가 정무여관(正武女官)에 해당한다. 위에서 「해(奚)」라 함은 「사동(使童)」의 뜻인 바 아마도 어린 궁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대(漢代)에 와서는 계층이 더욱 세분(細分)되었고 호칭(號稱)도 전혀 바뀌었다. 즉 미인(美人)·낭인(良人)·팔자(八子)·칠자(七子)·장사(長使)·소사(少使)등의 구별(區別)이 있었던 바 팔자(八子)·칠자(七子)란 녹질(祿秩)의 차(差)였다고 한다. 또 장사(長使)·소사(少使)·공(供使)는 무제(武帝)때에 와서 첩여(婕妤)·형아(姪娥)·용화(俗樺)로 바뀌었고 각각 작위(爵位)가 있었다고 한다. 그중 「첩여(婕妤)」라는 여관직(女官職)은 반첩여(班婕妤)의 이름으로 귀에 익은 호칭(號稱)이다.

원제(元帝)는 여기에 「소의(昭儀)」의 직계(職階)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로써 황후(皇后)로부터 최하(最下)의 여관직(女官職)까지 14등급(等級)이 있었다고 한다.

수(隨)나라 문제(文帝)때 궁제(宮制)는, 아래와 같다.

빈 삼(嬪 三), 세부 구(世婦 九), 여어(女御), 삼십팔인(三十八人)이 있었다고 하며 그 중(中) 세부(世婦)가 빈객(賓客)의 접대와 제사를 맡았는바 정오품(正五品)이었으며 「여어(女御)」는 여공사시(女功絲枲)를 관장했다 하며, 정칠품(正七品)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면 세부(世婦)와 여어(女御)는 그 직분(職分)이 있다는 사실로 보아 후궁(後宮)이라기 보다는 여관(女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외(外)에 육상(六尙)·육사(六司)·육전(六典)이 있어 내정(內廷)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바, 그 호칭(號稱)이 상서(尙書)·상의(尙儀)·상식(尙食)·상침(尙寢)등으로 상자(尙字)가 들어가, 고려(高麗)이래의 우리의 여관제도(女官制度)와 거의 흡사하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상서(尙書)·상의(尙儀)·상식(尙食)등의 구분(區分)이 있지만 무슨 의식(儀式)이나 경연(慶宴)때에만 그런 분장(分掌)으로 나누어 부를 뿐, 보통 때에는 상궁(尙宮)과 일반 내인(內人)으로 총칭(總稱)됨이 다르다. 그보다도 규모(規模)에 있어 수제(隨制)는 대대적(大大的)이어서 상서성(尙書省)안에 육국(六局)이 있어 그 아래 24사(司)를 관장하고 있는 점(點)이 과연 중원(中原) 대륙(大陸)의 궁녀제도(宮女制度)답다.

송대(宋代)에 내려와서는 태조(太祖)때 오대지제(五代之制)에 의거하여 「사부(司簿)」를 두고 궁중(宮中)의 모든 출납지사(出納之事)를 관장케 했다 하며 그 밖에도 사빈(司賓) 및 악사(樂使)까지 두어 궁중(宮中)의 성기(聲伎) 및 사군피(賜□帔(군피)), 즉 치마감을 상사(賞賜)한다는 뜻으로 상사(賞賜)관계를 관장하게 하였다. 다음 태종(太宗)때에 와서 더욱 손질을 하고 세분화(細分化)하여 구체적(具體的)으로 사무분장(事務分掌)을 해 놓았으나 제도자체(制度自體)로는 그리 큰 변동은 없다. 다음 진종대(眞宗代)에 내려와서는 여관제(女官制)라기보다 후궁(後宮)의 등급과 이에 따른 호칭(號稱)의 변화(變化)가 보이는 바, 조선조(朝鮮朝)때 내명부(內命婦)의 그것과 비슷한 데가 있다. 즉,

숙용(淑容)·순용(順容)·완의(婉儀)·완용(婉容)· . . . 종일품(從一品)  
소의(昭儀)·귀의(貴儀)·숙의(淑儀)·사궁(司宮)· . . . 정사품(正四品)

이 있었다. 소의(昭儀) 귀의(貴儀) 숙의(淑儀)의 품계(品階)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귀의(貴儀)는 소의지상(昭儀之上)이고, 완의(婉儀)는 완용(婉容)의 위라하고 사궁(司宮)이 정사품(正四品)으로 상궁(尙宮)의 위라 하니 아마도 종사품(從四品)(밑으로부터)서부터 정이품(正二品)사이가 아닌가 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궁녀제(宮女制)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백제(百濟)가 망(亡)할 때 삼천궁녀(三千宮女)가 낙화암(落花岩)에서 투신(投身)했다는 전설(傳說)이 있거니와 확실한 문헌적(文獻的) 근거도 없을뿐더러 한반도(韓半島)일부에 할거(割據)한 소국(小國)에 삼천(三千)이란 숫자(數字)는 중국(中國)을 본딴 과장(誇張)일 것이나 궁녀(宮女)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 본다. 한편 신라의 궁제(宮制)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여성(女性)이 관여하는 궁중부처(宮中部處)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조 하 방(朝霞房)	母 23人
염 궁(染宮)	母 1人
소 전(疏典)	母 6人
홍 전(紅典)	母 6人
소 방 전(蘇芳典)	母 6人
찬 염 전(攢染典)	母 6人
표 전(漂典)	母 10人
금 전(錦典)	?

기 전(綺典)(별금방(別錦房)) 母 8人  
침 방(針房) 女子 16人

위에서 「母」와 「女子」의 의미상(意味上)의 구별(區別)은 단순히 미혼(未婚)과 기혼(既婚)(노약(老若)?)인지 아니면 신분(身分)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부처(部處)들이 그 명칭(名稱)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직물(織物)·염색(染色)·자수·침선(針線)·세탁·수공업(手工業) 혹은 여공(女工)을 관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노동(勞動)만을 제공하는 고용녀(雇傭女)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임무—왕(王)의 시측(侍側)의 소임을 하는 여인(女人)들이 포함(包含)되어 있었는지의 여부(與否)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여왕(女王)이 셋이나 배출(輩出)되고 여권(女權)이 이조(李朝) 때같이 저하(低下)된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희(文姬)·보희(寶姬)자매를 이처(二處)로 맞이한 무열왕(武烈王)의 경우라든지, 또 신라가 망(亡)할 때 포석정(鮑石亭)에서 곡수유창(曲水流暢)의 연(宴)을 열고 있었던 경애왕(景哀王)의 곁에 몇 명의 잉첩(媵妾)이 있었다는 기록은 신라시대에도 약간의 후궁과 소수(少數)의 궁녀(宮女)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격적(本格的)인 궁녀제(宮女制)는 고려(高麗)때 시작되었다 보아진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고려 초(初), 정제(定制)가 없어 후비(后妃)이하를 모원(某院)·모궁부인(某宮夫人)으로 일컫고 현종(顯宗)때에 와서 비로소 상궁(尙宮)·상침(尙寢)·상식(尙食)·상침(尙針)의 직명(職名)이 생겼다. 한편 귀비(貴妃)·숙비(淑妃) 등의 호칭(號稱)이 있었는데, 정종(靖宗)이후는 흑 원주(院主)·원비(院妃) 또는 궁주(宮主)로 일컫기도 하고 문종(文宗)때에 궁제(宮制)를 정하여 귀비(貴妃)·숙비(淑妃)·덕비(德妃)·현비(賢妃)의 구분이 생겼는데 모두 정일품(正一品)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왕(王)의 후궁(後宮)들이다. 대체(大體)로 고려시대에는 사비(私婢)나 궁비(宮婢)나 할 것 없이 왕(王)이 행(幸)하기만 하면 「옹주(翁主)」라 칭했는데 공양왕(恭讓王)때 처음으로 이를 개정하여 왕자제군(王子諸君)의 본부인(本夫人)과 왕녀(王女)를 같이 옹주(翁主)라 칭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조(朝鮮朝)의 여관제도(女官制度)는 태종(太宗) 5년 정월(正月) 처음으로 「여궁(女宮)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이후에 국말(國末)까지 내려온 제도(制度)의 내역을 고려와 견주어 볼 때 많은 유사점(類似點)을 발견할 수 있다. 이조(李朝)가 그 자리에서 중앙집권체제(中央集權體制)의 고려의 뒤를 이어 출범(出帆)한 까닭에 궁녀제도(宮女制度)에 있어서도 제도(制度)뿐만이 아니라 궁녀자체(宮女自體)도 어느 만큼은 그대로 이어받았을 가능성이(可能性)가 크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로 「상궁(尙宮)·상침(尙寢)·상의(尙儀)」 등의 호칭(號稱)부터가 같다. 물론 이는 이 제도(制度)의 원조(元祖)가 중국(中國)이니 당연하다 하겠고, 성종(成宗)때 경국대전(經國大典) 「내명부(內命婦)」 조(條)에 이미 궁녀(宮女)의 계층을 정오품(正五品)부터 종구품(從九品)까지로 정(定)하였다.

조선조(朝鮮朝) 때 궁녀(宮女)에 관하여는 줄고(拙稿) 「내인생활(內人生活)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서는 생략한다.

## (2) 가뭇과 궁녀방송(宮女放送)

궁녀(宮女)도 인간이다. 사랑도 하고 싶고 자녀(子女)를 낳아서 남같이 가정(家庭)도 가지고 싶은 것은 그들이라고 다를 바 없다.

이를 때는 4,5세, 늦어야 12,3세, 철모르기는 마찬가지 나이에 타의(他意)에 의해 궁녀(宮女)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궁녀(宮女)의 몸이 되어버린 그네들이었다. 용(龍)꿈이라도 꾸

어서 왕(王)의 자녀(子女)라도 낳으면 금지옥엽(金枝玉葉)의 신분(身分)이 된다는 꿈은 아무나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설혹 후정(後庭)에 든다해도 왕자녀(王子女)를 낳지 못하면 그대로 상궁(尙宮)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대신 특전(特典)은 있다. 일정(一定)한 직책(職責)없이 오직 왕(王)의 곁에서 시위(侍衛)만 하면 되는 소위 「특별상궁(尙宮)」이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보수도 많고 대우도 다르고 일반(一般) 궁녀(宮女)에 비할 바 아닌, 편한 몸이 되기는 하지만 인간(人間)으로서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국말(國末) 고종(高宗)의 호색(好色)은 역대 왕(王)들 중에서 뒤지지 않아서 자녀(子女)를 낳은 부인(夫人)만도 정실(正室) 민비(閔妃) 말고도 6명이나 있었다. 이 밖에 자녀(子女)를 못 둔 후궁(後宮)중에 당호(堂號)를 가진 이가 3명이 있었으니 공공연(公然)한 후궁(後宮)이 9명인 셈이다. 그러나 왕(王)의 손길이 한 두 번 정도로 스쳐간 여인(女人)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노퇴궁녀(老退宮女)의 친지(親知)되는 분은 극론(極論)으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至密(지밀)·洗手間(세수간)뿐만이 아니라 인물(인물) 반반한 내인(內人)중에 상감님의 손 안 닿은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純宗황제만 빼놓고는 . . .」

물론 내인(內人)들의 명예에 걸리는 말에는 틀림없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퇴출궁녀(退出宮女)를 처첩(妻妾)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위법(違法)으로 보고 처벌(處罰)한 일, 또 출함(出閣) (분가(分家))한 왕자군(王子君)들이 대내(大內)에 들어오면 내인(內人)들에게 내외(內外)를 시킨 일 등이다. 이는 반드시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더라도 궁녀(宮女)라면 일단(一旦)은 왕(王)의 손이 닿았든 안 닿았든 잉첩(媵妾)으로 간주(看做)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호색(好色)의 군주(君主)라도 그 많은 궁녀(宮女)들을 다 돌볼 수는 없다. 그리하여 대다수(大多數)의 궁녀(宮女)들은 꽃같은 청춘(青春)을 외로움 속에서 헛되이 보내고 부모(父母)를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을지도 모른다. 효종(孝宗) 5年 9月, 궁녀(宮女) 하나가 우물에 투신(投身)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왕(王)은 이를 가엾이 여겨 홀전(恤典)을 베풀고 궁녀(宮女) 30명을 방송(放送)해 주었다. 그때의 말이

「唐太宗(당태종)은 3千名을 놓아주었는데 나는 고작 30명을 풀어준다.」 <孝宗實錄(효종실록) 권 1143면(面) 우(右) >

고 하였다.

옛부터 가뭄이 계속되면 여원(女冤)의 탓이라 하여 젊은 궁녀(宮女)들을 방송(放送)하는 전례(前例)가 많았다. 영조(英祖) 26年 9月 「45명을 풀어준 일」은 가장 대규모적(大規模的)이었다.

### (3) 궁녀(宮女)의 동성애(同性愛) —대식(對食)

궁녀(宮女)들은 옛부터 한방에 두 사람씩 거처(居處)하는 전례(前例)였다 하는 바 고종(高宗)후궁(後宮)으로서 1972년까지 생존(生存)한 삼축당(三祝堂)은 소주방내인 한희순(韓喜順) 상궁이 짝이었다고 한다. 삼축당(三祝堂)은 세수간 내인(洗手間 內人)이었다. 즉 소속에 관계없이 마음 맞는 친구와 동거(同居)한다는 것이다. 피차(彼此) 외로운 처지니 이런 가운데서 개중에는 동성애(同性愛)가 싹트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동거(同居)하는 궁녀(宮

女)들은 서로 「벗」이라고 부른다.

이조실록(李朝實錄)에 심심지 않게 등장하는 궁녀(宮女)들의 「대식(對食)」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연산군(燕山君) 10年 11月 왕(王)이 말하기를

「先王朝(선왕조)에 交朋(교봉)의 俗(속)을 改革(개혁)코자 했는 바,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犯(범)하는 자(者)가 많다.」

고 하였다. 그것은 궁둥이에 「봉(朋)」자(字)를 문신(文身)하고 대식(對食)을 했다는 것이다. 삼축당(三祝堂)에게 필자(筆者)가 「그것이 사실이나」고 문의한 적이 있었다. 그는 완강(頑強)히 부인(否認)하면서

「서로 외로우니까 말벗으로 같이 사는 것 뿐」이라고 대답했었다. 그는 고종(高宗)의 만년(晩年)무렵 승은(承恩)하여 「옥토끼」라는 애칭(愛稱)까지 받고 말년(末年)까지 모셨지만 생산(生産)을 못한 까닭에 특별상궁으로 머물러 있었다. 삼축당(三祝堂)이란 당호(堂號)는 후일 순종(純宗)이 내린 것이라 한다. 이는 부왕(父王)에 대한 효(孝)의 연장(延長)이었다.

#### (4) 궁녀(宮女)와 성범죄(性犯罪)

실록(實錄)에는 궁녀(宮女)와 얽힌 성범죄(性犯罪)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범죄(犯罪)라야 남성편중(男性偏重)사회의 가치관(價値觀)에서 나온 불공평(不公平)한 평가(評價)이다.

궁녀(宮女)의 입장(立場)에서 보면 힘센 남성(男性)들에 의한 피해자격(被害者格)인데도 정절(貞節) 사상(思想)이 종교(宗教)같았던 때라 의례(禮儀) 상대(相對)가 놓은 신분(身分)일 경우에는 궁녀(宮女)만 처벌받았다.

그 대상(對象)들은 왕자군(王子君)부터 내시(內侍)·궁액(宮掖)·승려(僧侶)에 이르렀다. 그 한 예(例)로 숙종 원(元)년 3월 청풍군(淸風君)이 올린 차자(筵子) 가운데

「先朝(선조)의 同腹(동복)인 福平君(복평군)형제가 禁中(금중)에 出入(출입)하여 各殿(각전) 紅袖(궁녀(홍수(궁녀)))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했다」

는 보고(報告)이다. 왕(王)은 그 궁녀(宮女)와 두 왕자(王子)를 나문(拿問)하였다. 그런데 그 동기(動機)인즉 복평군(福平君)이 주야로 대내(大內)에 머물 때마다 차(茶)를 청하여 「귀례(貴禮)」라는 이름의 궁녀(宮女)가 다상(茶床)을 들고 간즉, 그 손목을 쥐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궁녀(宮女)와 승려(僧侶)와의 사이에서 출산(出産)까지 하는 사례(事例)도 있고, 정조(正祖) 즉위년에는 궁녀(宮女) 사회의 풍기(風紀)가 문란(紊亂)해서 환시(宦侍), 혹은 외인(外人)들과의 교간(交奸)이 있어도 이를 음폐하고 심지어 그들이 궁중(宮中)에서 해만(解媿)하는 사태까지 있었고 혹은 장번(長番)의 중관(中官)이 버젓하게 침실(寢室)에서 궁녀(宮女)와 동거(同居)하는 예(例)도 있다는 것이다. 쌍방(雙方)이 모두 곤장(棍杖)을 맞고 유배(流配)되었다.

이런 현상(現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운영전(雲英傳)」에서 외간남자(外間男子)와 통(通)한 주인공(主人公)의 처벌(處罰)문제를 둘러싸고 그 상전(上典) 안평대군(安平大君)에게 동료궁녀(同僚宮女)들이 입을 모아 항변(抗辯)하는 장면(場面)은 아무리 소설(小說)이라 하더라도 이 작자(作者) 역시 남성인데도 궁녀(宮女)들의 처지에 만곡(萬斛)의 눈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국말(國末) 사양(斜陽)왕실의 궁인(宮人)들 가운데도 아이를 돌이나 낳은 궁녀(宮女)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츠츰마나눔(지도(指導)교수 같은 상궁(尙宮))의 자호(疵護)로 감쪽같이 비밀(秘密)에 붙여져서 몇 사람 외(外)에는 전혀 몰랐다하며, 이것이 궁중여인(宮中女人) 사회의 무서운 점이라 한다. 그것은 5·6백(百)이 들끓는 여인천하(女人天下)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진 것이 「입조심」이므로 가능(可能)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8,15직전까지 창덕궁(昌德宮)에서 일본어(日本語)선생으로 있던 「주영(住永)」이라는 일본여인(日本女人)이 돌아갈 때 한 말이 정곡(正鵠)을 찼었다는 것이라 한다.

「남치마 속이 아주 무섭습니다!」

### (5) 궁녀(宮女)들과 오락(娛樂)

대궐 안에도 오락(娛樂)시설이나 기구가 있었을까. 가장 오랜 전통(傳統)을 가진 것은 투호(投壺)이다.

투호(投壺)란 중국(中國)에서 전래(傳來)된 놀이이다. 「예기(禮記)」투호편(投壺篇)에 그 제도에 관해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히 언급(言及)되어 있는 바 주인(主人)이 빈객(賓客)과 서로 즐기는 오락지사(娛樂之事)라 한다. 투시(投矢)라는 화살을 양(兩)편이 똑같은 수효로 나누어 가지고 일정(一定)한 거리에서 투호(投壺) 속에 던져 넣는 놀이 이다. 많이 넣는 편이 승자(勝者)이고 이 경우 이긴 편이 진 사람에게 벌주(罰酒)를 따라주고 다 못 마시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라 한다.

우리 나라에는 북사(北史) 백제전(百濟傳)에 「유투호(有投壺)·저포(檣蒲)·농주(弄珠)·악삭등(握槳等) 잡희(雜戲)」라 있고 「당서(唐書)」고구려전(高句麗傳)에도 「好圍棋·投壺之戲 人能蹴鞠」이란 기록으로 보아 그 전통(傳統)의 오래임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예종(睿宗) 11년 송(宋)으로부터 전래(傳來)된 투호기(投壺器)에 대하여 의절(儀節)과 도식(圖式)을 만들어 바치게 한 기록이 처음이고 이조(李朝)때는 세종대(世宗代)에 비로소 보인다. 즉 왕(王)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서 투호(投壺)놀이를 관람(觀覽)했다 하고 한편 「용제총화(慵齋叢話)」에는 조정(朝廷)에서 상사(上巳)와 중양절(重陽節)에 기로연(耆老宴)을 열면 여흥(餘興)으로 이 투호(投壺)놀이를 했다고 있다. 또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흥학(興學)의 일환(一環)으로 향사(鄉射)와 더불어 투호(投壺)의 시행(時行)을 권장하였다고 있다.

중종(中宗) 2년 9월 왕(王)이 모화관(慕華館)에서 기영회(耆英會)를 열고 노인(老人)들로 하여금 피궁(皮弓)을 걸고 투호(投壺)를 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나 역시 이 놀이는 궁중(宮中)의 전용적(專用的)인 오락으로 이어져 내려온 듯 싶고 일제시대초(日帝時代初) 순종(純宗) 재세(在位)때만 해도 정월(正月)이면 빼놓을 수 없는 내전(內殿)의 연중(年中) 행사(行事)였다 한다. (삼축당(三祝堂) 증언)

우리의 투호(投壺)는 입이 둥그렇고 목이 가늘고 긴 백자(白磁)항아리이고 투시(投矢)는 대나무를 깎아서 끝에 쇠불이를 달은 작은 화살 모양의 것이다.

이것을 던져 넣을 때는 두 발을 앞뒤로 떼어놓고 투시(投矢)를 든 팔을 전후로 리듬을 맞춰 흔들다가 던진다. 용케 잘 들어가면 「땡그렁」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고 옛 궁인들은 회상한다.

정월(正月)에는 의례(禮儀) 대조전(大造殿) 육간(六間)대청(大廳)에서 연중행사(年中行事) 같이 설빔으로 성장(盛裝)한 궁녀(宮女)들이 왕비(王妃)를 모시고 투호(投壺)항아리를 둘러싸고 희희낙낙 환성(歡聲)을 올리던 풍경(風景)은 생각만 해도 화사하다. 특히 이 놀이의 선수는 윤황후(尹皇后)였다 한다. 그는 자그마하고 아담한 몸집에 투호(壺)에 짙은 솜씨가 있어 번번이 이기더라고 김상궁(金尙宮)은 술회(述懷)한다.

고종(高宗)이 일제(日帝)에 의하여 강제(強制)로 양위(讓位)한 후 덕수궁(德壽宮)시절에는 함녕전(咸寧殿) 대청에 잣, 호도, 밤등의 보름을 각각 한 가마씩 들여다 놓고 궁인(宮人)들에게 투호(投壺)놀이를 시키고 상(賞)으로 이것을 내렸다고 한다(삼축당(三祝堂) 증언). 이 투호(投壺)놀이는 놀이치고는 아주 우아하고 고풍(古風)스런 것이었건만 그나마 순종(純宗) 승하후는 신문명(新文明)의 물결에 밀려 어느 덧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 ② 윷놀이

투호(投壺)놀이 외에 내인(內人)들이 정월(正月)에 많이 즐긴 것은 윷놀이였다 한다. 「윷」은 우리 나라 고유(固有)의 놀이라 하며 신라시대에 이미 있었을 것이라는 설(說)이 있는 바 오늘날까지도 정월(正月)놀이의 하나로서 건재(健在)하고 있다. 궁중(宮中)에서는 투호(投壺)와는 달리 윷은 비빈(妃嬪)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덕수궁(德壽宮)시절 고종(高宗)은 망국(亡國)의 설움을 달래느라 정월(正月)이면 궁녀(宮女)들로 하여금 투호(投壺)와 함께 이 윷놀이를 시키고 역시 보름상격(賞格)을 내렸다는 것이다. 윷 외에 궁녀(宮女)들은 비빈(非番)날 자기들 살림방에서 화투도 치고 쌍육(雙六), 마작, 서양(西洋)장기도 곧잘 두었다고도 한다. 이 놀이에 「내기」로는 술은 궁중(宮中)에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고 대신(代身) 「담배 잡히기」 「줄침」 등의 기합(氣合)이 있었다.

### ③ 가창(歌唱)

실록(實錄)에는 영조(英祖) 3년 6월에 이색적(異色的)인 계사(啓辭)가 보인다. 즉 밤중 궁정(宮庭)에서 창가성(唱歌聲)과 소적(簫笛)소리가 들리니 이는 궁인(宮人)들의 소위(所爲)일 것인즉 엄히 다스리시라는 것이다.

이 경우, 통소와 피리의 반주(伴奏)라는 사실에서 판소리나 노래가락은 아니었을 것 같다. 전아(典雅)한 아악(雅樂)에 맞춰 의식(儀式)때 부르는 가사(歌辭)(악장(樂章))이었는데 혹은 권필(權韜)의 유명한 시(詩)

「강두수창미인사 정시고주월락시」  
 「江頭誰唱美人辭 正是孤舟月落時」

하고 송강(松江)의 양미인곡(兩美人曲)을 기생(妓生)이 불렀다 하는 사실로 보아 한시(漢詩)의 창(唱)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국말(國末)에는 조금 질이 격하(格下)된 듯 싶다. 삼축당김씨(三祝堂金氏)에 의하면 내인(內人)중에 목청이 좋은 이가 있어 비빈(非番)날에는 저녁식사후(대궐 저녁은 연중(年中) 오후 6시였다) 정원(庭園)에 나가 「소리도 하고」 (삼축당(三祝堂) 김씨(金氏)의 말) 이야기도 하고 외로운 생활을 달랬다고 한다. 그 「소리」의 종류는 어디서 배웠는지 시조창(時調唱)·「육자백이」 같은 것도 있고, 때로는 「아리랑」 「널리리야」 서부터 「시체노래」(유행가(流行歌)인 듯)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삼축당(三祝堂)과 광화당(光華堂) (고종후궁·본명 이완흥(李完興))은 승은(承恩)



(왕(王)의 후궁(後宮)이 됨) (전출(前出))하기 전에도 본래(本來) 성격이 내향적(內向的)인데다가 「스승 마나님」의 훈계(訓戒)가 엄해서 한번도 그런데 끼어 보지 못했다고 한다.

## (6) 국말(國末)의 여흥(餘興)

여흥(餘興)이란 오늘날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궁중용어(宮中用語)에서는 기생(妓生)이나 광대(廣大)들이 하는 무락(舞樂) 및 정재(呈才)를 「여흥(餘興)」이라 한다. 국가(國家)의 경사(慶事)가 있을 때 엄숙한 의식(儀式)뒤에 반드시 이것이 뒤따랐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덕수궁(德壽宮)시절 고종(高宗)은 치욕감과 고독감 속에서 한 달에 5,6회(回)씩 이 여흥(餘興)을 즐겼다고 한다. 국가의 특별한 경연(慶宴)이 아니건만 그 출연자(出演者)들은 역시 악방기생(樂房妓生) 80명이 동원(動員)되었다고 한다. 무용(舞踊)의 레퍼토리는 진연(進宴) 때와 마찬가지로 춘앵전(春鶯囀)·선유락(船遊樂) 등이었고, 남자(男子) 재인(才人)들은 사자무(獅子舞)와 학무(鶴舞) 및 정재(呈才)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종(高宗)의 이 여흥벽(餘興癖)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로여서 경복궁(景福宮)시절에도 자주 있었다는 것이다. 광대(廣大)들은 녹의홍상(綠衣紅裳)의 여장(女裝)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그 중(中) 김모(金某)라는 미소년(美少年) 무동(舞童)에게 민비(閔妃)가 매혹되어 삼천냥(三千兩)의 팁을 주었다는 믿지 못할 얘기도 있다. 그러나 악방기생(樂房妓生)도 일제(日帝)시대에 접어들면서 폐지되고 더불어 이 여흥(餘興)도 쇠퇴했으나 순종(純宗)은 1주일에 한번씩은 실내(室內)에서 창극(唱劇)을 보았다고 한다. 그 장소(場所)는 회정당(熙政堂)에서 대조전(大造殿)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큰방들이다. 또 이와는 정반대(正反對)의 신식(新式) 여기(技)로서 당구(撞球)를 쳤다고 한다. 낙선제(樂善齋)후원(後苑) 육모정(육각정(六角亭))이 바로 그 당구대(撞球臺)가 놓였던 자리다. 지금도 그 계단과 정자(亭子)안마루에 깔려있는 퇴색(褪色)한 융전(絨氈)의 조각이 옛 영화(榮華)의 자취를 말해주고 있다. 지밀(至密)소속의 궁녀(宮女)들은 곁에서 구경만 했다는 것이다. (김명길(金命吉) 상궁(尙宮)의 담(談))

## (7) 궁녀(宮女)들의 언어(言語)

궁녀사회(宮女社會)에서 쓰는 용어(用語)는 대체로 공(公)과 사(私)의 이중조직(二重組織)이라 할 수 있다. 즉 공(公)은 대(對) 상전(上典)이요, 상위자(上位者)인 선배궁인(先輩宮人)들이요, 또 한편 동료간(同僚間)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場所)라는 구별(區別)인 것이다. 같은 동료(同僚)끼리라 하더라도 당번(當番) 날의 근무중(勤務中)에는 함부로 베풀는 막된 용어(用語)를 쓸 수 없다. 한편 상위자(上位者)라 했는 바, 그 가운데는 나이로 보면 막내 동생이나 딸 같은 소녀(少女)라 하더라도 위(왕(王), 왕비(王妃), 대비(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들)에게 부리시는 「생각시」들에게는 「허우체(體)」를 쓴다.

「아무개야」하고 이름을 불러도 안되고 「××씨, 그랬우 저랬우」 한다는 것이다. 궁녀(宮女)아닌 하녀(下女)들—무수리, 각심이(방자(房子))들은 생각시에 「애기 향아님(姪娥님)」이라 부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동료간(同僚間)

입궁(入宮)한지 5년 이내의 소녀(少女) 내인(內人)들은 「악심이」라 하며, 이 기간동안

그들 상호간(相互間)의 호칭은 공적(公的)으로는 서로 「××씨」이다. 따라서 말씨 역시 「허우체(體)」 또는 「이랬어, 저랬어」 하는 반(半)말체(體)를 쓴다 한다. 이 점(點), 내인(內人)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 ②선배에게

악심이 기간이 끝나면 입궁년조(入宮年調)에 따라서 생각씨와 내인(內人)은 그 동료간 서로 「—씨」라 부르고, 연상(年上)에게는 「××씨 형님」이라 호형(呼兄)하고 「허우체(體)」를 쓴다. 그런데 그 투가 요즈음 같은 「하세요」가 아니고 「~합쇼」이다. 예(例)컨대,

「안녕히 잡쇼!」

「어서 밥 자십쇼!」 「살피가십쇼!」라 한다.

그리고 재미 있는 말은 전갈(傳囑)을 맡고 와서 알리는 말 서두(序頭)에 하는 「기별오!」이다. 이는 풀어 말하면 「기별(寄別)하오」인 바, 신하(臣下)들이 왕(王)께 아뢰는 「아뢰오!」에 해당하는 공적용어(公的用語)이다. 이 「기별하오!」는 내인(內人) 동료간, 또 선배간 및 대상궁(對尙宮)의 용어(用語)도 된다.

「기별오(기별(寄別)하오)! ××씨!」

#### ③상궁(尙宮)에게

상궁이라 해도 그 신분(身分)에는 계층이 많아 일률적(一律的)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사람들은 상궁(尙宮)에게 대하여 「마마님」이라 부른다. 한편 「마마님」은 민간(民間)의 경우는 남의 소실(小室)을 높여 부르는 칭호이기도 하다. 왕(王)이나 왕비(王妃)를 마마라 부르고, 상궁(尙宮)에게는 「님」자를 더 붙인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가지만 이것이 관습(慣習)이니 할 수 없다.

「기별오! ×상궁 마마님」 ··· 대칭(對稱)

「××방(房) 마마님들」 ··· 삼인칭(三人稱)

상궁(尙宮)을 가리켜 「마마님」이라 부르는 것은 생각시, 내인(內人), 또는 그 아래 무수리, 방자(房子)들이지만 같은 상궁(尙宮)이라도 나이가 떨어진 사이면 선배상궁(先輩尙宮)에게 「××마마님」이라 바치고 비슷한 선배면 「×상궁(尙宮)」 혹은 이름까지 다 붙여서 「××상궁(尙宮)」이라 부른다.

#### ④ 후배에게

궁녀(宮女)사회의 선후배(先後輩)간 예절(禮節)은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어느 남성사회(男性社會)보다 더 엄한 것이 특징이다. 최고위 정오품(正五品)의 제조(提調)상궁(큰방상궁)정도면 금(金)테안경을 쓰고 인력거(人力車)를 타고 외출(外出)하며, 궁내(宮內) 자기(自己) 처소에서 무수리나 방자(房子)를 돌씩 부린다. (침모(針母)·식모) 그들의 위엄은 대단하다. 한중록에는 국혼(國婚)때 세자빈(世子嬪)후모집에 나온 상궁(尙宮)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累代 歷事하와 禮貌도 알고 간대롭지 아니하니」

착 은 궁 회(宮姬) 로 양 이 아니었다고 생각 밖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제조(提調)상궁이 아니더라도 상궁(尙宮)이 후배내인(內人)을 부를 때에는

「박(朴)가 모(某)! 이(李)가 아무개」  
이렇게 부르고 반(半)말씨를 썼다고 한다.

⑤ 왕(王)께 아뢰는 때

앞서 궁여간(宮女間)의 경우와 같이 왕(王)에게도 남자(男子) 신하(臣下)들과 똑같이 「아뢰오!」의 공적(公的) 용어(用語)를 쓰는 바 그 어법(語法)이 특이하다.

왕(王) 「네 누구냐?」

「김옥순으로 아뢰오」

왕(王) 「아무개는 어디 갔느냐?」

「부정한 데 갔음으로 아뢰오」

부정(不淨)한 데는 화장실이다.

한편 女子 상전(上典)일 경우에는 구어체(口語體)로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다. 김명길상궁(金命吉尙宮)은 윤황후(尹皇后)에게

「마마. 머리 아뢰와요?」(머리 비껴드릴까요?)

했다는 바, 어디까지나 약식화(略式化)된 언어이다. 이는 13세에 같이 입궁(入宮)하여 60여년을 동고동락(同苦同樂)한 사이인데다가 그보다도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변질(變質)된 언어(言語)에 그나마 六·二五후는 4~5인 식구에 더욱 상하(上下)간이 좁혀져서 그렇게 간략한 언어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 한다. 정식(正式)이면 본방내인(本房內人)(친정에서 솔래(率來)한)이 상전(上典)에게

「마마, 머리 아뢰오리이까」

이다. 六·二五때 피란살이시절. 양재기에 수라를 담아 올리고, 그 상(床)물림을 그 자리에서 4, 5인이 먹었던 시절도 있다고 슬회(述懷)한다.

순종(純宗)은 궁녀(宮女)들에게 직접(直接) 말을 건네기를 잘 했다는 것이다.

「너 누구냐?」

「○○방 ×××로 아뢰오!」

「왜 왔느냐?」

「마마! 소화반(소화제) 하나만 흘어 추옵소서」

「물어주다」는 「하사(下土)하다」의 궁중용어(宮中用語)이다.

## II. 궁중(宮中)의 무속(巫俗)

국초(國初)부터 국무당(國巫堂)이라 하여 전속무당(專屬巫堂)이 궁중(宮中)에 드나들고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궁녀(宮女), 내시(內侍)를 보내어 기도(祈禱)하던 고려조(高麗朝) 기은(祈恩) 풍습(風習)은 여전하게 이조(李朝)에도 답습(踏襲)되었었다. 이는 현전(現傳)하는 궁중발기(건기(件記))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관련(關聯)되는 주인공(主人公)이 바로 민비(閔妃)이다. 이리하여 일개(一介) 무녀(巫女)가 왕비(王妃)의 총애(寵愛)를 입어 재상(宰相) 부럽지 않는 영화(榮華)와 권세(權勢)를 누리 이를 지탄하는 상소문(上疏文)까지 나올 판이었으며 북관묘(北關廟)의 진령군(眞靈君)같은 것이 그 대표적(代表的)인 예(例)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궁중건기(宮中件記) 중, 양적으로 임오가례(壬午嘉禮)의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위축 불귀」라 하여 이 무속(巫俗)관계의 것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大部分)이 민비(閔妃)가 그 아드님 순종(純宗)을 위하여 명산대천(名山大川) 또는 무슨 당주(堂主), 무슨 성황당(城隍堂)에 축도(祝禱)드린 기록이다.

서울 장안(長安)에 무당(巫堂) 관수가 우글거리던 한말사회(韓末社會)의 어두운 일면(一面)을 엿볼 수 있고 서울 근교(近郊)에서만도 한번에 적지 않은 재물(財物)을 소비(消費)했음을 볼 때, 이것의 전국적(全國的)인 규모(規模)를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일례(一例)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역은 요점(要點)만 적기(摘記)하겠음)

#### <위축불귀>

「壬辰十二月  혹  석  니  당주  각처(各處)  신사(神事)지는은  불귀  ·  동궁(東宮)마마  윗  즈와」

#### ○ 관악산(冠岳山) 칠일(七日) 기도(祈禱)

전(錢) 2천냥(千兩), 포(布) 2필(疋), 미(米) 3석(石), 축(燭) 30병(병(柄)), 백목(白木) 7필(疋), 향(香) 3병(柄), 목(木) 2필(疋), 장지 2권(卷), 백지(白紙) 5권(卷), 백지(白紙) 2권(卷), 유지(油紙) 10장, 향(香) 10병(病), 호초(胡椒), 미(米) 1석(石), 저포(苧布) 2필(疋), (장습차(次)), 목(木) 3필(疋), (다홍 띠차(次)), 축(燭) 10병(柄), 즈단향, 저포(苧布) 2필(疋)(예단차(禮緞次)),

- 선회봉: 전문(錢文) 8백냥(百兩), 백목(白木) 1필(疋),
- 사신(使臣) 성황(城隍) 칠일(七日) : 전(錢) 2천냥(千兩)
- 파주(坡州) 미륵(彌勒) 칠일(七日) : 전(錢) 3천오백냥(千五百兩)
- 홍제원(弘濟院) 미륵(彌勒) 칠일(七日) : 전(錢) 2천냥(千兩)
- 봉곡스 삼칠일(三七日) : 전(錢) 5천냥(千兩)
- 통주 삼칠일(三七日) : 전(錢) 1만냥(萬兩)
- 신선당(神仙堂) 칠일(七日) : 전(錢) 2천냥(千兩), 미(米) 2석(石), 축(燭) 20병(柄), 목(木) 5필(疋), 백목(白木) 1필(疋), 예단(禮緞) 2필(疋), 향(香) 20병(柄), 자단향(紫檀香)
- 홍제원(弘濟院) 미륵(彌勒) 칠일(七日) : 전(錢) 2천냥(千兩), 미(米) 2석(石), 백목(白木) 1필(疋), 목(木) 4필(疋), 포(布) 1필(疋) · 백지(白紙) 4권(卷), 축(燭) 20병(柄), 향(香) 20병(柄), 자단향(紫檀香)
- 파주(坡州) 미륵칠일(彌勒七日) : 전(錢) 3천(千) 5백냥(百兩), 미(米) 1석(石), 백목(白木) 2필(疋), 목(木) 5필(疋), 포(布) 1필(疋), 축 20병(柄), 백지(白紙) 5권(卷), 향(香) 30병(柄), 자단향(紫檀香)
- 봉곡사(奉國寺) 삼칠일(三七日) : 전(錢) 5천냥(千兩), 백지(白紙) 7권(卷), 만슈향 30봉, 축(燭) 50병(柄),
- 통주(通州) 삼칠일(三七日) : 전(錢) 1만냥(萬兩), 목(木) 10필(疋), 백목(白木) 3필(疋), 포(布) 3필(疋), 네단 3필(疋), 백지(白紙) 10권(卷), 축(燭) 50병(柄), 만슈향 30봉, 안식향 39병(柄), 자단향(紫檀香)

이것을 합(合)해 보면, 전문(錢文) 25,300냥(兩), 미(米) 9석(石), 목(木) 33필(疋), 포(布) 15

필(疋), 백지(白紙) 30권(卷), 만슈향 100봉, 안식향(安息香) 2갑, 저포(苧布) 4필(疋), 축(燭) 200병(柄), 기타 자단향, 호초(胡椒) 등은 양(量)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갑신년(甲申年)(고종(高宗) 21年 2月 「탄일(東宮(東宮)의 위축불기」에서 보면 남묘(南廟), 북묘(北廟), 동묘(東廟)를 위시하여 화룡사(華龍寺), 북한(北漢) 봉천암, 용문사, 성북동(城北洞) 미륵당, 순강원, 칠성경 등등, 그 기축(祈祝)하는 곳도 여러 곳이며 북한산(北漢山)의 승가사(僧迦寺)까지 등장한다.

그리고 보내는 물품(物品)도 「탄일(誕日) 위축」은 소규모(小規模)인지 관왕묘(關王廟)가 전문(錢文) 300냥(兩) 정도에 쌀, 백목(白木), 축(燭) 등속이며, 호초(胡椒)가 반드시 끼는 것은 조미료(調味料)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호초(胡椒)가 외래품(外來品)이라 귀(貴)하였기 때문에 부마간택(駙馬揀擇)에도 하사품목(下賜品目)속에 들어있을 정도이다.

위의 실례(實例)로 보듯이 한번 기축에 전문(錢文)만도 25,000냥(兩)이 넘으니 그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換算)하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1년에 탄일(誕日) 말고도 명절(名節) 및 절일(節日) - 정월(正月), 사월과일(8일) 단오(端午), 칠석(七夕), 추석(秋夕), 동지(冬至)와 또 비빈(妃嬪)에게 태기(胎氣)가 있을 경우도 같다. 출산(出產)까지 얼마나 아들 낳기를 축원(祝願)했을 것이며, 출산(出產) 후에도 그 전정(前程)을 위하여 장성(長成)하기를 얼마나 빌었을 것인가.

전(傳)하는 말에 의하면 민비(閔妃)같이 무당(巫堂), 관수를 좋아한 왕비(王妃)도 없다고 한다. 그가 검은 구름이 중첩(重疊)하는 국말(國末)의 왕비(王妃)로서 처(處)하여 칼자루를 쥐고 대원군(大院君)과 대결(對決)하던 여걸(女傑)임을 생각할 때, 수궁이 안가는 점도 있으나 그 역시 모성(母性)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외아들 세자(世子)(순종(純宗))가 어릴 때부터 약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이 밖에 무속(巫俗)관계의 궁중발기는 「한국민속학(韓國民俗學)」 지(誌) 제 1 집에 발표된 최길성(崔吉城)씨의 「궁중무속자료(宮中巫俗資料)」 소개에 밀기로 하고 여기서는 궁중문학(宮中文學)작품 속에 나타난 무속(巫俗)관계와 「월드 워」으로써 모집(募集)한 한말(韓末)의 궁중무속(宮中巫俗)의 일면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 ① 「국무(國巫)」와 「당주(堂主)」

광해군대(光海君代)를 배경(背景)으로 한 「계축일기(癸丑日記)」 속에는 대비전(大妃殿)(인목대비(仁穆大妃))과 대전(大殿)(광해군(光海君))의 적대(敵對)관계 속에 이 「무속(巫俗)」이 끼어들어, 결국은 대비(大妃)가 왕(王)을 저주(詛呪)했다는 혐의로 마침내 폐모대론(廢母大論)까지 파급(波及)되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 「국무녀(國巫女) 수란개(水蘭介) 수련개(水蓮介)」의 이름이 등장한다.

「나라흔(仁穆大妃) 수란개 외에 잡무녀(雜巫女) 아니 부리기는 만목(萬目)이 다 아는 줄로 들었더니...」

라는 대목에서, 그 무녀(巫女)는 왕대비(王大妃)의 단골 무당(巫堂)이며 궁전속(宮專屬)이라서 「국무녀(國巫女)」로 일컬어지는 듯하다. 이조실록(李朝實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수련개 호위국무녀 연칠십 무녀소인출입제남가자야」

「水蓮介 號爲國巫女 年七十 巫女所引出入悌男家者也」

「제남(梯男)」이란 부원군(府院君) 김제남(金梯男)으로 즉, 이 국무녀(國巫女)는 대비(大妃) 친정 가솔(家率)들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이니, 전왕대(前王代)부터의 대궐 단골 무당임이 틀림없다. 숙종대(肅宗代)가 배경인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에서 궁내(宮內)에 신당(神堂)을 꾸며 놓고 장희빈(張禧嬪)이 인현왕후(仁顯王后)를 저주(詛呪)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나 그 무녀(巫女)는 「국무녀(國巫女)」는 아니었다. 장희빈(張禧嬪) 친정에서 들어온 무녀(巫女)였으니, 앞의 「계축일기(癸丑日記)」속에 인용(引用)을 보더라도 불의(不義)의 「저주지사(詛呪之事)」같은 것은 잡무녀(雜巫女)나 한다는 것이다.

「한중록(閑中錄)」에 내려와서는 「세자(世子)」의 병(病)때문에 문복(問卜) 했다는 이야기는 나와도 그 대상(對象)은 「국무녀(國巫女)」인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병환이 대단히 드오서 진퇴 무상하오시니 어찌 문복지 않았으리오. <중략(中略)> 세간을 기울여 신사기도 독경불이를 많이 하되 조금도 낫지아니하시고…」

여기서 신사(神祀)는 굿, 기도(祈禱)는 명산대천(名山大川)에의 기은(祈恩), 독경(讀經)은 이 역시 무속(巫俗)의 「경읽히기」로 오늘날과 같이 「맹인(盲人)」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다음 인용(引用)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자(世子)가 소년(少年) 시절에 학문(學問)에 힘을 쓰지 않고,

「경문잡서(經文雜書)를 좋아하셔 당주복자(堂主卜者) 김명기(金明基)에게 경(經)을 써 오라」

해서 이것을 공부하여 외웠다는 것인데 이 사실에서 미루어 보건대, 이 「당주(堂主)」는 남자(男子)이며 또 맹인(盲人)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계축일기(癸丑日記)」당시와 같이 대대(代代) 비빈(妃嬪)과 내인들을 상대(相對)로 국무녀(國巫女)가 따로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국말(國末)에 내려와서 민비(閔妃)의 광신(狂信)에서 무녀(巫女)에게 군호(君號)를 바치는 판국(版局)이었으니 그때부터 「국무녀(國巫女)」 「당주(堂主)」에서 성(性)의 구별(區別)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민비(閔妃)가 굿을 좋아한 반면, 엄비(嚴妃)는 「독경(讀經)」을 좋아했다 하는 바 이미 고인(故人)이 된 옛 상궁(尙宮)들이나, 1872年生인 김명길(金明吉)상궁에 의하면 엄비(嚴妃)때 덕수궁(德壽宮)시절에는 「국무녀(國巫女)」라는 명칭(名稱)은 없고 「당주(堂主)」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상궁(金尙宮)이 그가 13세때 (병오년(丙午年) 1906年) 세자빈(世子嬪) (윤비(尹妃))을 모시고 입궁(入宮)했을 당시 「나랏 당주(堂主)」라는 궁중(宮中) 전속(專屬)의 무녀(巫女)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70세가 넘었었으며 흰칠하게 생겼었다고 술회한다. 지금 동대문(東大門) 밖에 그 딸이 무당(巫堂)으로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당주(堂主)」란 필자(筆者)가 어릴 때 (1930년대) 까지만 해도 시내(市內) 변두리에 여기저기 「당(堂)집」이라 일컫는 집들이 있었다. 울창한 수목 울타리로 둘러싸여, 그 곁에는 역사를 대변(代辯)해 주는 고목(古木)이 서 있어서 백주(白晝)에도 그 근처를 지나가기를 꺼려했었다. 춘추(春秋)로 큰 굿이 열렸는데 동네 아낙네들이 몰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굿하러도 맞머느리 춤추는 꼴이 보기 싫어 못한다。」는 속담이 이런데서 나온 듯 싶다. 일

반서민(一般庶民)의 「당(堂)」 신앙(信仰)에 관하여는 현재 현용준(玄容駿)씨·양성기(梁聖麒)교수 등의 많은 연구가 있으니 이에 밀겠고, 한말(韓末) 궁중(宮中)의 경우, 「당주(堂主)」란 「국무녀(國巫女)」에 대치(代置)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조대(英祖代)까지만 해도 「국무남(國巫男)」 격(格)인, 독경(讀經)을 위주로 한 당주(堂主)라는 존재(存在)가 국말(國末)에 가서 민비(閔妃)가 「무녀(巫女)」에게 「진령군(眞靈君)」 「현령군(賢靈君)」 등의 남자(男子)같은 칭호를 내린 후로부터 남녀 구별(區別)없이 궁중전속(宮中專屬)의 무격(巫覡)이 「당주(堂主)」로서 일원화(一元化)된 것 같다.

## ② 대포(大砲)와 축귀(逐鬼)

대포(大砲)를 쏘아서 귀신(鬼神)을 쫓은 사실이 있다. 「계축일기(癸丑日記)」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다.

「대전(大殿) 사던 본당(本堂)에 해마다 방포(放砲)를 매어 놓고 귀신을 쫓아

우 리 계 로 오 게

한 일 이러라.」

이는 즉 광해군(光海君)이 인목대비(仁穆大妃)궁(명례궁(明禮宮))을 향(向)해서 대포(大砲)를 쏘게 한 사실(事實)인 바, 신유년(辛酉年)(광해군(光海君) 13年) 7월조(月條)(실록(實錄))에는 보이지 않으며, 「명륜록(明倫錄)」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기사가 있다. 즉 광해(廣效) 7年 (을묘(乙卯)) 2月9日 왕(王)이 전교(傳敎)하기를

「화포장(火砲匠) 이십명(二十名)을 관원(官員)이 인솔하고 와서 十일부터 연二일간 대궐과 동궁(東宮)에 총포(銃砲)를 쏘게 하라.」

한 즉 정원(政員)에서 반대(反對)한 계사(啓辭)에 「경승백사(敬承白邪) 사불범정성덕(邪不犯正聖德)」이라고 했으니 즉, 왕(王)의 성덕(聖德) 앞에 「사귀(邪鬼)」같은 것은 침범(侵犯)할 리가 없으니 헛되이 백성(百姓)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실(事實)일진대, 가뜩이나 피해의식(被害意識)에 사로 잡혀있던 인목대비 편에서는 귀신을 자기(自己)네로 쫓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도 일부(一部) 촌로(村老)들은 「기차(汽車)가 생기면서부터 귀신이 도망갔다」고 믿는 생각이, 이 총을 쏘아 축귀(逐鬼)하는 습속(習俗)의 연장적 사상이라 보았을 것이다.

## ③ 국혼(國婚)과 「여탐」 곳

궁중무속(宮中巫俗) 중 재미있는 것은 「여탐」이라는 화려하고도 대규모적(大規模的)인 곳이다.

이는 국혼전(國婚前) 별궁(別宮)에서 거행(舉行)되는 바, 일종(一種)의 「살풀이곳」에 해당한다. 즉 왕비(王妃)나 세자빈(世子嬪)으로 간택(揀擇)된 처녀(處女)가 삼간택(三揀擇)후 별궁(別宮)으로 들어가 국혼(國婚)날 (가례(嘉禮))까지 왕비(王妃)로서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소위 「별궁(別宮)살이」 기간(其間)동안에 이 곳은 열린다. 날을 받아서 「나랏당주(堂主)」인 국무(國巫)를 포함한 5명의 무녀(巫女)들로서 거행(舉行)된다는 것이다. 김명길상궁(金明吉尙宮)의 말을 빌리면 13세 어린 소녀(少女)가 겪은 안동별궁(安洞別宮)의 「여탐굿」의 인상(印象)은 「기질을 할만큼 망측하고 무섭기만 했다。」고 한다. 안동별궁(安洞別宮) 대청(大廳)에 굿을 배설(排設)해 놓고 그 앞에 「홍두께」에 가발(假髮)을 씌어서 족두리를 씌우고,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혀 사람같이 세워놓고 5명의 무녀(巫女)들이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굿을 했었다. 이날 본궁(本宮)에서 궁녀(宮女)들이 모두 나오고 종친(宗親)과 외척(外戚) 양반부녀(兩班婦女)까지 모두 구경하러 참석(參席)했고, 이 굿의 주관(主管)은 제조상궁(提調尙宮)이었다 한다.

이 굿의 목적(目的)은, 새 식구(食口)를 궁중으로 맞아들이기에 앞서 「살풀이」 겸 조상신령(祖上神靈)들에의 인사라는 것이니 유교(儒敎)의 고유다례(告由茶禮)의 뜻과도 통(通)한다 하겠다. 그러나 보다 더욱 절실한 목적은 세자(世子)에게는 재혼(再婚)이므로 그 전빈(前嬪)(민씨)의 녀을 위로하는 의미(意味)가 강했을 것이라 본다. 이 굿이 진행(進行)되는 동안 당본인(當本人)인 「처녀(處女)」(윤비(尹妃))는 자기 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내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 ④ 독경(讀經)과 세초위축(歲初爲祝)

한중록(閑中錄)에서 보면, 세초(歲抄) 궁중(宮中)에서 위축(爲祝)의 독경(讀經)을 가졌다는 아래와 같은 기록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초(歲初)에 경(經)을 읽히는 날, 금성위(金星尉)도 들어오고 마침 날이 늦어 독경(讀經)하는 배설(排設)이 늦으니 궁녀(宮女)들이 본디 공순치 않은 인물로 서로 앉아 무엇이라 하였던지 선희궁(宣禧宮)도 노하여 하고 영조(英祖)도 그 눈치를 스쳐 알고」 이후 동궁(東宮)에 발길이 멀어짐으로써 훗날 부자(父子)간에 그 엄청난 비극의 실마리가 되었던 그 운명의 굿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注目)할 것은 세초위축(歲初爲祝)이 「신사(神祀)굿」이 아니고 「독경(讀經)」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여인(女人)들만이 참여(參詣)한 것이 아니라 군주(君主)까지 참석했다는(물론 세자(世子)도 합석(合席)했을 것임) 사실이다. 이는 그 행사(行事)가 무녀(巫女)들의 굿과는 달리 하나의 거궁적(擧宮的)인 연례행사(年例行事)로서 왕(王)의 참여로 미루어 여자주인(女子主人)들(왕대비(王大妃), 왕비(王妃), 세자빈(世子嬪) 등)은 물론이고, 더우기 약혼중(約婚中)의 부마(駙馬)까지 들어왔다는 사실(事實)에서 이 세초독경(歲初讀經)이 축제(祝祭) 같은 행사(行事)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건대 궁중(宮中)의 무속(巫俗)이 주(主)로 왕대비(王大妃), 왕비(王妃) 등 「여성(女性)들에 의하여 계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남성(男性)들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女性)이라 하더라도 사람 나름 이어서 한말(韓末), 두 왕비(王妃) (민씨(閔氏)와 엄씨(嚴氏))는 한 편은 「무당」을, 한 편은 「소경의 독경(讀經)」을 좋아했었고 (전언(前言) 또 순종비(純宗妃) 윤씨(尹氏)는 독실(篤實)한 불교신봉자(佛敎信奉者)로서 그 심복(心腹) 궁녀(心腹宮女) 중, 고상궁(高尚宮)이란 이가 창덕궁(昌德宮) 근처 「대각사(大覺寺)」를 창건(創建)했을 만큼 불교(佛敎)에 심취(心醉)하였었다. 그러므로 윤비(尹妃)이후, 창덕궁(昌德宮)에서는 일절(一切)의 무속(巫俗)은 종적을 감췄고 「고사(告祀)」 한번 지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金)상궁이 구경한 대궐의 굿은 다만 병오년(丙午年) 국혼전(國婚前)의 「여탐굿」이 최초이자 최후였다 한다.



### ⑤ 「무장」과 팔죽

이는 무속(巫俗)과는 달리 「민속(民俗)」이라 하고 싶지만 「궁중(宮中)의 민속(民俗)」도 말이 안되어 일반 궁중풍속(宮中風俗)으로서 건기(件記)와는 관계없이 수집(蒐集)을 위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선달 그믐날 새벽 궁중(宮中)에서 왕(王)과 왕비(王妃)를 위시하여 상궁(尙宮)·내인(內人)들까지 마시는 것이 있다. 즉 「무장」이라 하여, 일종(一種)의 「날메주」국물인데 백(白)항아리에 소금물 끓인 것을 식혀 담고, 거기에 메주를 똑똑 떼어 넣었다가 우려낸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는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벽사(辟邪)의 뜻을 내포한 것이다. 김명길(金明吉) 상궁은 그 항아리를 들여다 본 적이 있는 후로는 자기는 마시지 않았지만 왕(王)과 왕비(王妃)까지도 꼭 마시더라는 것이다.

팔죽은 민간(民間)에서는, 동지(冬至)날 쭈지만 궁중(宮中)에서는 동지(冬至)와 여름 초(初), 중(中), 말(末) 세 「복일(伏日)」에 번번히 쭈어서 온 궁중(宮中)이 다 먹었다 한다. 그 술은 지금,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 층계 위 양편에 장식같이 놓여 있는 청동(靑銅)술, 이것을 「부견주」라 하였다. 이는 화로 비슷한데 다만 양(兩)편에 손잡이 고리가 있고, 대신 발이 없다.

### ⑥ 사자(使者)밥

우리 나라 민속신앙(民俗信仰)에서 오늘날도 대체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상속(喪俗) 가운데 「사자(使者)밥」인 바, 이것이 궁중(宮中)에서는 왕(王)이 승하(昇遐)했을 때에 민간(民間)과 다른 격식이 있다는 것이다. 즉 왕(王)의 침전(寢殿)인 대조전(大造殿) 뒤뜰에 명석에 깔고 그 위에 화문석(花紋席)을 또 깔고 그 위에 제상(祭床) (다리가 긴 것)을 남면(南面)으로 놓고 그 앞에 모단병(牡丹屏)을 친다. 상(床) 위에는 좌우(左右)에 와룡(臥龍) 촛대에 불을 밝히고(밤에는) 우측(右側)에는 큰 유(籟)소라(눗양동이)에 흰밥을 가득 담아 놓고, 좌측(左側)에는 술 한 동이를 놓아 소위 일직사자(日直使者), 월직사자(月直使者)들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제상(祭床) 아래 화문석(花紋席) 위에는 미투리 일곱 켤레를 놓는다. (짚신이 아님) 또, 병풍(屏風) 위에는 좌우(左右)에 호피(虎皮)와 왕(王)의 주의(周衣) (두루마기)를 걸쳐 놓는다. 호피(虎皮)는 아마도 벽사(辟邪)의 뜻인 듯 싶다고 김상궁(金尙宮)은 말한다. 이것은 입재궁(入棹宮) (입관(入棺))할 때까지 이 상태로 둔다고 한다. 모단병(牡丹屏)은 상제(喪祭)에 한(限)하여 쓰이며 대궐 안의 약식사당(略式祠堂)인 선원전(璿源殿)의 병풍(屏風)도 모두 이 모란 꽃을 그린 병풍(屏風)이었다.

### 숫뚜껑 꼭지 밟기

민간(民間)풍속에 신부(新婦)가 처음으로 시가(媿家)에 들어올 때 숫뚜껑을 밟고 들어오는 것을 필자도 어릴 때(서울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그런데 궁중(宮中)에서는 간택(揀擇)때 여러 처녀들에게 일제히 적용(適用)시키는 점이 이채(異彩)롭다.

국혼(國婚)에는 세번의 간택(揀擇)이 선행(先行)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조 중후기(李朝中後期) 이후 창덕궁(昌德宮)을 본궁(本宮)으로 사용하던 시절은 간택(揀擇)하는 장소(場所)는 회정당(熙政堂) 넓은 대청이었고 그들 처녀들의 출입문(出入門)은 단봉문(丹鳳門)이었다. (현 돈화문(敦化門) 동(東)쪽 옆 소문(小門)) 이때 궁(宮) 안쪽으로 문지방 바로 앞에 큼직한 가마솔 뚜껑을 엮어 놓는 바, 처녀들은 한 사람 한사람, 그 숫뚜껑 꼭지를 밟고 대궐 문지방을 넘어들어 갔다고 한다. (김명길(金明吉) 상궁의 경험담)

<資料>

궁녀명부(宮女名簿)

다음은 순종(純宗)승하 삼개월(三個月) 전(前) 궁인(宮人)들에게 지급(支給)된 급료(給料)의 내역서(內譯書)인 바, 망국(亡國)의 왕실(王室)이라 하더라도 왕(王)을 둘러싸고 궁내체제(宮內體制)는 옛 면목(面目)을 유지(維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참고(參考)삼아 제시(提示)해 본다.

귀인(貴人) 복녕당(福寧堂)	580원 (덕혜옹주 생모(生母))	
귀인(貴人) 광화당(光華堂)	480원 (왕자(王子)를 낳음. 1960년대초(年代初)까지 생존(生存))	
귀인(貴人) 보현당(寶賢堂)	280원 (왕자(王子)를 낳음)	
귀인(貴人) 정화당(貞和堂)	280원 (윤덕영(尹德榮)의 간계(奸計)로 40대(代) 노처녀(老處女)로 들어와 고종(高宗)을 뵈은 바도 없이 과부가 됨)	
귀인(貴人) 영보당(永保堂) (완왕(完王)의 생모(生母))	200원	
내안당(內安堂)	200원	
귀인(貴人) 김옥기(金玉基) (삼축당(三祝堂))	115원(1972년 졸(卒))	
노퇴궁인(老退宮人) 백춘안(白春安)	55원	덕수궁
" 오정선(吳鼎善)	50원	
" 이창선(李彰善)	50원	
" 김기련(金基連)	50원	
" 유계선(柳繼善)	50원	
" 엄청일(嚴淸一)	40원	
" 이선현(李善鉉)	38원	
" 김선록(金仙祿)	33원	
" 김성운(金聖雲)	30원	
" 이재석(李載錫)	30원	
" 장갑성(張甲成)	30원	
" 방영기(方永基)	28원	
" 조하서(趙霞棲)	25원	
" 성호길(成好吉)	25원	
" 김필수(金弼洙(洙))	25원	
" 김용택(金龍澤)	30원	
" 정경덕(鄭景德)	28원	
" 신벽환(申壁煥)	28원	
" 김동혁(金東赫)	25원	
" 송무현(宋武鉉)	25원	
" 이은수(李恩洙)	25원	
" 장은수(張殷洙)	25원	
" 강흥덕(姜興德)	25원	
" 손흥엽(孫興燁)	25원	
" 최치정(崔致貞)	25원	서기(書記)
" 박완철(朴完哲)	23원	
" 정채규(鄭采圭)	23원	

"	박완식(朴完植)	23원	
"	김원석(金元石)	23원	
"	김복현(金福賢)	23원	
"	곽연수(郭連秀)	23원	
"	태추혜(太秋惠)	20원	
"	김봉창(金鳳昌)	20원	
"	안봉규(安鳳圭)	20원	
"	정운성(鄭雲成)	20원	
"	유금순(劉今順)	23원	
"	김봉석(金鳳錫)	20원	
노퇴궁인(老退宮人)	최장희(崔長喜)	20원	
"	김평수(金平洙)	20원	
"	최갑성(崔甲成)	20원	
"	김성영(金成永)	20원	
"	김길엽(金吉燁)	23원	
"	장원영(張元英)	20원	
"	김영순(金英順)	20원	
"	윤봉길(尹鳳吉)	20원	
"	오기향(吳基享)	20원	
"	진덕영(秦德英)	20원	
"	이추희(李秋喜)	20원	
"	장경운(張敬雲)	20원	
"	김준성(金俊成)	20원	
"	최운성(崔雲成)	20원	
"	임영순(林永順)	20원	
"	이창순(李昌順)	20원	
"	안창길(安昌吉)	20원	
"	이흥창(李興昌)	20원	
"	이상규(李相圭)	20원	
"	유복현(劉福賢)	15원	
"	변복동(邊福童)	15원	덕혜옹주 유모(乳母)
"	김옥현(金玉鉉)	15원	덕혜옹주 유모(乳母)
"	이옥창(李玉昌)	15원	
"	서기하(徐玘河)	15원	
"	정원엽(鄭元燁)	15원	
"	조봉인(趙鳳仁)	15원	
"	김채선(金采善)	15원	
"	임임성(林任成)	15원	
유 족(遺族)			
	이일주(李日周)	20원	
	박충서(朴忠緒)	20원	

김대준(金大俊)	15원
천연회(千年會)	30원
오준근(吳俊根)	50원

위에서 보면 고종(高宗)의 후궁(後宮)들인 6명의 귀인(貴人)외에 노퇴(老退)궁인 65명과, 유족 5명이다. 유족들에게 은급(恩級)이 내려졌다는 사실에서 그 궁인(宮人)들은 이미 타계(他界)하고 은급(恩級)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종(高宗)의 승하(昇遐)후 덕수궁이 폐지(廢止)되었으므로 출궁(出宮)한 궁녀(宮女)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줄고(拙稿) 「내인생활(內人生活) 연구」에서 언급(言及)한 바, 조하서(趙霞棲)상궁의 이름도 보인다. 그는 고모(姑母)가 헌종비(憲宗妃) 명헌왕후(明憲王后) (홍씨)의 큰방상궁이었던 연줄로, 4세때 홍대비전(洪大妃殿) (전출(前出)) 지밀(至密) 아기 내인(內人)으로 들어온 후 숙명여고(淑明女高)까지 나오고 이우공(李鏞公)의 결혼(結婚)으로 도일(渡日)하기까지 30여년(餘年)이나 근무했건만 그 은급(恩級)이 내인(內人)들의 중간서열(中間序列)임을 보면 그 이상의 궁녀(宮女)들은 선조(先朝)때부터 이대(二代) 삼대(三代)에 걸쳐 사관(仕觀)해 온 노상궁(老尙宮)인 것 같다.

한편 현직(現職)은 다음과 같다.

<동년동월(同年同月)>

지밀궁녀(至密宮女)	김충연(金忠淵)	196원	창덕궁
"	천일청(千一淸)	176원	"
"	장성원(張成源)	142원	"
"	정완현(鄭完賢)	142원	"
"	고봉운(高鳳雲)	136원	"
"	윤명운(尹明雲)	136원	"
지밀궁녀(至密宮女)	차석순(車錫順)	125원	
"	손춘임(孫春任)	120원	
"	유경운(劉景雲)	120원	
"	신태향(申泰享)	95원	
"	정화창(鄭華昌)	87원	
"	최현식(崔賢植)	60원	
"	박춘희(朴春喜)	77원	
"	김창희(金昌喜)	77원	
"	천연희(千年喜)	77원	
"	김필순(金畢順)	50원	
본 방(本 房)	김명길(金命吉)	95원	(현재(現在) 생존중(生存中))
"	박창복(朴昌福)	65원	(1982년 卒)
침 방(針 房)	최창운(崔昌雲)	80원	
"	서추임(徐秋任)	76원	
"	김오사(金五仕)	73원	
"	유성운(柳成雲)	65원	
"	김사운(金仕雲)	69원	
"	이연순(李年順)	58원	
"	강길현(姜吉鉉)	58원	

"	이화순(李和順)	57원	
"	남현임(南鉉任)	57원	
수 방(繡房)	이완순(李完順)	73원	
"	이은희(李恩喜)	65원	
"	김용준(金龍俊)	58원	
세수간(洗手間)	이영옥(李榮玉)	73원	
"	김경길(金慶吉)	65원	
"	정봉순(鄭鳳順)	65원	
"	박용창(朴龍昌)	58원	
"	김이진(金利眞)	57원	
"	박유현(朴裕鉉)	43원	
"	정영숙(鄭榮淑)	40원	
소주방(燒廚房)	이준창(李俊昌)	73원	
"	오성순(吳聖順)	73원	
"	정명순(鄭明順)	58원	
"	최연록(崔連錄)	58원	
"	이완길(李完吉)	57원	
"	장인성(長引聲)	57원	
"	박명업(朴明業)	57원	
"	최금호(崔今鎬)	54원	
"	한희순(韓喜順)	54원	(숙대(淑大)강사역임)
"	서문길(徐文吉)	45원	
생과방(生果房)			
"	최채길(崔彩吉)	73원	
"	박추길(朴秋吉)	58원	
"	안흥복(安興福)	58원	
"	최덕길(崔德吉)	57원	
세답방(洗踏房)			
"	변영선(邊永善)	73원	
"	임성창(任盛昌)	73원	
"	김복성(金福成)	58원	
"	김영순(金英順)	57원	
"	이흥선(李興善)	57원	
"	임순이(林順伊)	50원	
색장내인(色掌內人)	김영운(金永雲)	76원	
복 지(僕 只)	박순길(朴順吉)		
	김복완(金福完)		
비 자(婢 子)	박복순(朴福順)	20원	
"	김수동(金壽同)	18원	
"	이상돌(李上玆)	18원	
"	김순희(金順喜)	18원	

”	김경순(金敬順)	18원
”	김태순(金泰順)	18원
”	허숙례(許淑禮)	18원
”	박덕순(朴德順)	18원
”	김임녀(金妊女)	18원
”	신돌이(申丕伊)	18원

이것을 각처소별(各處所別)로 그 인원(人員)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지밀내인(至密內人)(본방내인(本房內人) 2人 포함(包含)) 18名

침방(針房) ”	9名
수방(繡房) ”	3名
세수간(洗手間) ”	7名
소주방(燒廚房) ”	10名
생과방(生果房) ”	4名
세답방(洗踏房) ”	6名
색장내인(色掌內人)	1名
복지(僕只)	2名
비자(婢子)	10名

지밀내인(至密內人) 중 본방내인(本房內人)이란 왕비(王妃)가 가례(嘉禮)때 친정에서 데리고 들어온 시녀(侍女)를 말한다. 이는 왕비(王妃) 아니라도 사대부(士大夫)의 딸이 출가(出嫁)할 경우, 몸종을 한 명 솔래(率來)했던 바 일명(一名) 교전비(轎前婢)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남자(男子) 직원들의 이름이 보인다.

어용괘(御用掛)	안상호(安商浩)	225원
통역관(通譯官)	영수(永水)	150원
이발사(理髮師)	홍경희(洪慶喜)	110원

이 월급명단이 경술합병(庚戌合併) 이후 이미 15년이 지난 때였으니 왕국(王國)의 체통(體統)도 사양(斜陽)의 빛을 감출길 없어 어용괘(御用掛), 이발사등 벌써 그 명칭(名稱)부터가 그렇고 직분(職分)부터가 일본(日本)냄새가 나고 그보다도 노자(奴子)라고 하는 남자(男子) 소사(小使)들의 이름이 들어나 나온다.

노자(奴子)	이호영(李浩永)	18원
”	김흥식(金興植)	18원

「어용괘(御用掛)」란 총무(總務)라고나 할까. 이발사(理髮師)는 왕(王)이 상투를 깎은 뒤였으므로 전속(專屬)의 이발사(理髮師)가 있던 것이니 개화(開化)의 바람은 구중심처(九重深處)에도 불어닥친지 이미 한참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 세 사람의 월급(月給)이 꽃다운 청춘(青春)을 바쳐 한평생 오직 일편단심(一片丹心), 임을 위해 섬겨온 궁녀(宮女)들의 그것보다 너무나 많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앞서와는 별도(別途)로 노퇴궁인(老退宮人)이 10명의 이름이 보이는 바, 이는 창덕궁(昌德宮) 관계(關係)의 궁녀(宮女)인 듯싶다.

문경길(文慶吉)	25원
문희성(文喜成)	25원
이낙창(李祿昌)	25원
손흥필(孫興弼)	25원
신연성(申演成)	25원
임순영(林順永)	20원
조원재(趙元在)	20원
김운영(金云英)	20원
김성길(金聖吉)	25원
이회길(李會吉)	25원

그런데 이보다 불과(不過) 4年 앞선 1922年 1월분(月分) 봉급명단(俸給名單)을 보면 촉탁(囑託)이란 명목(名目)으로 일인(日人)이 등장(登場)한다. 귀인(貴人)들은 앞서 6인중(人中)에 일인(一人)이 줄고 복녕당(福寧堂)이라 칭하기 전, 특별상궁(特別尙宮)으로 「양혜안당(梁惠安堂)」(덕혜옹주생모(德惠翁主生母))이라 했고 노퇴궁인(老退宮人)의 수(數)도 71명에 앞서 보다 6名이나 더 불었고 현직궁녀수(現職宮女數)도 20名이나 더 많은 81名이다.

이미 일본(日本)에게 국권(國權)이 넘어간지 10年이 넘었으니 왕실(王室)이라야 명목(名目) 뿐, 더구나 고종(高宗)의 승하(昇遐), 왕족(王族)들의 도일(渡日)도 기식엄엄(氣息奄奄) 주어진 예산내(豫算內)에서 겨우 체모(體貌)를 유지(維持)하고 있었는데도 창덕궁(昌德宮)에 만도 그만큼의 궁녀(宮女)들을 포용(包容)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많은 퇴출궁녀(退出宮女)들의 숫자(數字) 속에는 옛날 규칙(糾飭)대로 이미 노쇠(老衰) 하여 나간 사람도 있고 시대(時代)가 바뀌어 자연도태(淘汰)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왕(王)과 세자(世子)의 용흉배(龍胸褙)와 왕비(王妃)의 적의(翟衣) 또는 원삼(圓衫), 그밖에 문관(文官)·무관(武官)들의 흉배(胸背)가 전일(前日)과는 그 수요(需要)가 달라졌을 것이 분명(分明)하다. 이발사(理髮師)가 있었던 것을 보아도 알 일이지만, 국말(國末)에 내려와서 왕(王), 왕비(王妃)들이 양복(洋服)으로 정장(正裝)을 하고 외국신하(外國臣下)들을 대(對)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통 평복(平服)에도 신문명(新文明)의 영향으로 과거(過去) 몇 세기(世紀) 동안 궁중(宮中)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상하(上下)에 하나의 제도화(制度化)되었던 의생활(衣生活)에 혁명을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노예제도의 폐지, 호적제도의 신설 등으로 계급주의의 붕괴는 궁녀제도의 종속적 굴레에 있어서도 그 명분(名分)이 희박해진 것은 당연하다. 궁녀 인구(人口)의 감소는 경술(庚戌)이후, 보다 절실한 이유는 일제(日帝)의 왕실예산(王室豫算)의 삭감(削減)이었음은 사실이고 그밖에는 갇혔던 새들이 자유(自由)를 찾아 평범(平凡)한 인간사회로 훨훨 날아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모의학박사(某醫學博士)부인 및 모서예가(某書藝家)의 부인(夫人)이 된 여인(女人)들은 왕년(往年)의 궁녀(宮女) 출신임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밖에 궁녀인구(宮女人口) 감소의 이유의 하나는 개화(開化)의 물결이 궁중(宮中)까지 서서히 밀어닥쳐서 의(衣)·식(食)·주(住) 면에서 생활양식(生活樣式)이 바뀌어간데도 있다 할 것이다. 우선 침방수방(針房繡房)의 일이 줄었고 단발령(斷髮令)과 더불어 양복(洋服)의 등장(登場)에 뒤따라 재봉틀이 궁중(宮中)에 들어왔다는 사실로 옛 궁중생활(宮中生活) 체제(體制)는 눈에 보이게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李朝實錄風俗資料撮要, 女官制度의 沿革<精神文化院소장> 朝鮮常識<制度篇> 崔南善 孝宗實錄 권11  
英宗實錄 권 43  
拙稿 : 李朝女流文學과 宮中風俗의 연구1971, “李朝후기 宮中風俗의 연구<學位논문> 1973. 藏書閣所藏,<內人名簿>